

제2회 DAP 자격검정 합격

정성철 삼성SDS 책임

“DAP, 개발자에게는 필수죠”

지난 7월 실시된 「제2회 DAP 자격검정 시험」결과, 총 응시자 190명 중 7명이 최종 합격의 기쁨을 맞았다. 5%가 채 못 되는 인색한 합격률을 기록, 지난 1회 시험과 마찬가지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애를 먹었다는 후문.

삼성SDS 전자반도체체인프라개선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성철 책임도 지난 3월 처음 실시된 1회 시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1회 시험에서는 문제도 어려웠지만, 시간 배정을 잘못했다. 2회 때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 시험을 치렀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 선뜻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정 책임은 삼성SDS 내에서도 DA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데이터아키텍처(이하 DA)란 개념조차 없던 시절부터 막연히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그 분야의 경험을 쌓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10년 가까이 담당하다, 이후 3년 정도 대외 SI(시스템통합) 프로젝트 업무를 맡게 된 정 책임은 KT의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프로젝트, 정보통신부 금융 DW 프로젝트에서 TA(Technical Architecture) 역할을 수행하며 데이터아키텍처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그는 삼성SDS 멀티캠퍼스에서 ‘데이터베이스기술’ 분야 과정 사내 교수로 강의를 하며 틈틈이 교재 집필도 병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사 내 업무에다 강의, 교재 집필로 1분, 1초도 쪼개 쓰는 빠듯한 생활 속에서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을까.

“업무량이 많아 평일에는 따로 공부 시간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멀티캠퍼스에서의 강의와 교재 집필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었고, 특히 각 챕터별로 입체적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기업 내에서 DA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 책임은 “강의를 나가보면 개발자들이 DB 고급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며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이제 DA에 대한 이해는 필수” 라고 강조했다.

정 책임은 모든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인데 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DAP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DA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DB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많은 분야에 대한 업무 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글 박현수 기자 사진 이해성 기자

